

교직과정 이수중인 대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의 탐색

A Study 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Desirable Teacher's Model

이 윤 식(인천대 교수)*
김 인 정(합일초등학교 교사)

요 약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초·중·고등학교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교직과정 이수중인 대학생 55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경험한 좋다고 생각한 교사에 대한 회고록을 수집·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이 생각하는 좋은 교사상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교사,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교사,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진로안내자로서의 교사, 학생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교사, 리더십 있는 교사, 바른 삶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사, 인간미 있는 교사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교사들이 교육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도적·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 대상 각종 정책은 바람직한 교사상의 정립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교원 양성 교육 및 임용에 있어 바람직한 교사가 갖추어야 할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바람직한 교사상, 교사의 자질

* yunsik0@incheon.ac.kr

** 원고접수(08.10.30). 심사(08.12.08). 수정완료(08.12.16).

I. 서 론

우리 시대의 바람직한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우리 사회는 훌륭한 교사, 바람직한 교사를 원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적 행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교사인가에 따라서 학생의 성장·발달,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될수록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교사의 자질과 역할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최근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설문 조사(교육마당, 2007. 10.) 결과에 따르면 교사는 바람직한 교사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을 충실한 수업으로 보았고, 학부모는 도덕성과 사명감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스스로는 교직을 전문적으로 인식하고 교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으나, 학부모는 교수 능력에 앞서 교사의 도덕성과 사명감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 체벌, 성추행, 시험 문제 유출 등 극소수 교사들의 비도덕적인 모습은 교권을 실추시키고 일반인으로부터 전체 교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는 교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교원면허갱신제를 도입하여 10년마다 교원 자격을 갱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지도력 부족 교원의 문제를 법제화하고 개선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오성삼, 2007). 우리나라에서 교사평가제와 부적격 교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도 교사의 질 향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교사 능력 평가나 교사 양성 및 임용, 교사 연수 등 교사 관련 각종 정책 추진은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른 바람직한 교사상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역할이 다변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교사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한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도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교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교육적 가치, 이념 등을 함께 고찰해야 한다(송광용, 2007: 69).

학자들이 제시한 기존 연구물을 살펴보면, 교육에 대한 이념이나 본질로부터 바람직한 교사상을 추출한 연구(김종철, 1994; 최석민, 2000; 이돈희, 2000; 황기우, 2001), 위대한 인류의 스승으로부터 바람직한 교사상을 추출한 연구(정영수 외, 1998; 이혁규, 2002), 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 영역인 수업, 생활지도, 학급경영면에서 바람직한 교사상이나 자질을

제시한 연구(김명수, 2005; 정영수, 2007; 송광용, 2007) 등이 있다. 최근에는 21세기 급변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에 대한 연구(이돈희, 2000; 서정화, 2001; 김정환·강선보, 2005; 김병찬, 2005)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김병찬(2005: 57-85)은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한 교사 중에서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교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분석을 시도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상의 특징을 연구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바람직한 교사, 좋은 교사상을 도출하는 귀납적인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연역적 성격이 강하여 학교 현장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학위논문에서도 기존에 연구된 바람직한 교사상의 범위 내에서 질문지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현대의 바람직한 교사상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교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사상을 도출해보는 귀납적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 탐색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으며, 또한 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직교사들에게는 교육활동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 문제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로 설정되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전제 및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교사지망을 목표로 하는 교직과정이수 학생들의 입장은 일반 진로를 목표로 하는 일반 학생들과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관점에서,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둘째, 이 연구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자질 중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인식이 가능한 영역 즉, 학생 교육활동면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으며, 미래대학교(가칭)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55명이라는 소수의 특정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이므로 이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연구의 방법 면에서도 학생 55명이 회고한 자료를 주 자료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5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토의를 통한 바람직한 교사상 도출 작업은 추진하지 않았다.

넷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다소 주의가 요망된다. 대학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사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바람직한 교사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단지 대학생의 입장에서 보는 바람직한 교사상인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교직과정 이수생들이 과거 추억을 토대로 초등·중등 구분보다는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교사의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연구를 제한하였다. 이후 초등 교사의 이미지, 중등 교사의 이미지를 세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추후 연구가 요망된다.

II. 바람직한 교사상에 관한 선행 연구

바람직한 교사상은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자세와 연관성이 깊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많은 학자들이 바람직한 교사상을 제시하였다(이윤식·유현숙, 1991; 이석호, 1994; 윤관중, 1995; 김재우, 1996; 황의일, 1997; 김진한, 1998; 김병찬, 2005; 송광용, 2007).

이윤식·유현숙(1991: 23)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한 『신규교사 자격 검정 방안 개선 연구』에서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을 전문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교사의 전문적 특성으로서는 ① 교직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면에서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건전한 교직원 등, ② 교직에 대한 지식과 이해 면에서 교과목에 대한 지식 및 이해, 학생에 대한 지식 및 이해, 교육조직 생활 및 업무 처리에 대한 지식 및 이해 등, ③ 교직에 대한 기술 및 실기 능력 면에서 교과 지도에 대한 기술 및 실기 능력, 학생지도에 대한 기술 및 실기 능력, 특별활동 지도에 대한 기술 및 실기 능력, 교육조직 생활 및 업무 처리에 대한 기술 및 능력 등을 들었다.

바람직한 교사의 개인적 특성으로서는 ① 인성과 인품 면에서 원만한 인격, 올바른 언행과 예절, 건전한 자아개념과 인생관 등, ② 정신적 건강면에서 정서·심리적 안정감 및 건강 등, ③ 신체적 건강 등을 들었다.

이석호(1994: 132-150)는 바람직한 교사란 올바른 교육관이 확립된 교사, 교직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이 높은 교사, 바람직한 인격자, 풍부한 학식을 갖춘 교사, 학생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사,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교사, 변화에 능동적인 적응력을 갖춘 교사, 연구하는 교사라고 하였다. 윤관중(1995: 33-39)은 바람직한 교사가 지녀야 할 자세로 인간적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애,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성, 교육에 대한 신념과 명확한 철학, 교직에 대한 전문성, 특수한 사명을 지닌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성, 투철한 책임의식,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탐구성, 앞을 내다 볼 줄 아는 미래 지향성을 제시하였다.

황의일(1997: 438-441)은 전문가로서의 바람직한 교사상을 긍정적인 인간관을 지닌 교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교사, 부단히 노력하고 술선수범하는 교사, 폭넓은 안목과 지식을 갖춘 교사, 아동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교사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재우(1996)는 학생이 바라는 교사상을 학생을 좋아하고 친절하며 인정이 많은 교사, 지식이 풍부하고 재미있게 지도하는 교사, 학생지도에 열성적이며 술선수범하는 교사 등 12가지로 제시하였다.

김진한(1998)은 바람직한 교사의 요체를 한 마디로 사랑과 정열로 요약하면서, 교육적 사랑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가르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김병찬(2005: 57-90)은 현대의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는 선생님, 박식하고 수업을 잘 이끌어주는 선생님, 사랑이 있는 선생님, 철학이나 신념이 있는 선생님, 지도력이 있는 선생님, 정의감 있고 공평한 선생님 등을 제시하였다. 송광용(2007: 69-71)은 바람직한 교사는 건전한 사고와 가치관, 교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교직능력 향상 및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술선수범 자세, 담당 교과지식 및 교수 능력, 그리고 학생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람직한 교사의 특성은 가르치는 전문가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교사, 바람직한 인간의 표상으로서 도덕적 품성을 고루 갖춘 교사임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학교는 수업의 객체였던 학생이 주체로 변화하고 수업의 주체였던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보조자로 변화하고 있다(서정화·김지희, 2001: 123). 새로운 시대의 변화 모습을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교사상을 제시하는 연구(천세영·이옥화, 1996; 신극범, 1997; 곽영우, 1999; 이돈희, 2000; 윤종건, 2000; 서정화·김지희, 2001)를 살펴보면, 21세기에는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안목과 창의성, 폭넓은 지식과 정보화 능력 등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변함없이 강조되고 있는 점은 교사로서의 전문적 식견,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인격을 갖춘 교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21세기에는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적 토양이 마련되어야 하며,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운영과 다양한 형태의 학교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지식 수용 교육에 초점을 두었던 교육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식 기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능력 신장과 새로운 지식 생성이 가능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사상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은 통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수치, 측정, 실험, 수량적 관계와 진술에 초점을 두는 양적 연구가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기대하는 교사상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 연구(김태수, 1999; 이재호, 2000; 오숙자,

2001; 고재길, 2002; 김운기, 2005), 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상국, 1997; 주복희, 2000; 김영덕, 2001; 이종효, 2006), 미래 사회를 예측하여 바람직한 교사상을 제시한 연구(김영미, 2004) 등이 있다.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탐색한 결과, 학생들은 인격을 존중해 주는 교사, 학생을 친절하게 지도해 주고 이해심이 많은 자상한 교사, 친근감을 가지고 많은 대화를 통해 이해와 사랑으로 안내하는 교사를 기대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교육목적에 따라 학습 지도와 생활지도를 잘 해주는 교사를 바람직한 교사로 인식하였다. 이처럼 바람직한 교사상을 제시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온 이유는 교사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사로서 지향해야 할 준거를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결과는 교사의 역할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므로 바람직한 가치관과 교사상을 정립하여 신뢰와 존경받는 교사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과정

이 연구는 대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는 연구로 질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미래대학교¹⁾에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2006학년도 2학기 교육사회학과 2007학년도 1학기 교육학개론 수강생 중에서 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55명을 선정하였으며, 학생들의 인적 사항은 <표 III-1>과 같다. 구체적으로는 남학생 22명, 여학생 33명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3명, 2학년 46명, 3학년 1명, 4학년 5명이다. 연령별로는 19세 1명, 20세 19명, 21세 13명, 22세 6명, 23세 9명, 24세 6명, 28세 1명이다. 전공별로는 국어국문학과 13명, 물리학과·생물학과 각 10명, 전기공학과·독어독문학과 각 4명, 기계공학과·컴퓨터공학과 각 3명, 화학과 2명, 영어영문학과·중국어학과·불어불문학과·일어일문학과·물리학과·전자공학과 각 1명이다.

자료는 학생들이 기록한 회고록을 사용하였다.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자료 수집에 동의를 구하여, '학생들이 지난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고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교사는 언제, 누구였으며 어떤 점에서 그러하였는가?'를 회고하여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였다.

1) 이 논문에 나오는 대학의 이름, 학생 이름, 교사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이는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의 윤리에 따른 것이다.

<표 III-1> 연구 대상자 인적 사항

연번	이름(가명)	성별	연령	전 공	학년	연번	이름(가명)	성별	연령	전 공	학년
1	김경록	남	24	국어국문학과	1	29	이가을	남	23	물리학과	2
2	김준석	남	20	국어국문학과	2	30	김상진	남	23	물리학과	2
3	김지수	여	20	국어국문학과	2	31	류은숙	여	23	물리학과	4
4	이수민	여	20	국어국문학과	2	32	정미나	여	24	물리학과	4
5	조은혁	남	22	국어국문학과	2	33	윤소라	여	21	화학	2
6	김서희	여	20	국어국문학과	2	34	박한별	여	21	화학	2
7	서지영	여	20	국어국문학과	2	35	황중호	남	21	생물학과	2
8	이진영	여	19	국어국문학과	2	36	김희진	여	21	생물학과	2
9	김우혁	남	20	국어국문학과	2	37	안유진	여	20	생물학과	2
10	이세창	남	23	국어국문학과	2	38	김보은	여	21	생물학과	2
11	권도현	남	23	국어국문학과	2	39	이민아	여	21	생물학과	2
12	김민수	남	23	국어국문학과	2	40	정보민	여	20	생물학과	2
13	전종배	남	23	국어국문학과	2	41	최지우	여	21	생물학과	2
14	김현정	여	22	영어영문학과	4	42	모지영	여	22	생물학과	2
15	이현진	여	21	독어영문학과	2	43	문상희	여	24	생물학과	2
16	엄소영	여	20	독어영문학과	2	44	장미오	여	22	생물학과	4
17	이세창	여	20	독어영문학과	2	45	오태석	남	21	전기공학과	2
18	전종배	여	22	독어영문학과	2	46	조영식	남	21	전기공학과	2
19	김혜정	여	20	불어국문학과	2	47	한갑수	남	20	전기공학과	2
20	장은미	여	23	일어일문학과	4	48	이미남	남	25	전기공학과	3
21	최상일	남	24	중국어학과	1	49	송나라	여	21	전자공학과	2
22	안지희	여	20	윤리학과	2	50	가재석	남	22	기계공학과	1
23	구승희	여	20	물리학과	2	51	한지영	여	20	기계공학과	2
24	허윤미	여	21	물리학과	2	52	김진수	남	23	기계공학과	2
25	서우람	남	21	물리학과	2	53	강예진	여	20	컴퓨터공학과	2
26	최유석	남	24	물리학과	2	54	강주은	여	20	컴퓨터공학과	2
27	고민환	남	24	물리학과	2	55	장은숙	여	20	컴퓨터공학과	2
28	한상철	남	20	물리학과	2						

대학생이 경험한 바람직한 교사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을 찾아 내기 위한 자료의 분석은 Spradley(1980)가 제안한 주제 분석과 유목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대학생들이 기록한 회고록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바람직한 교사들은 어떠한 공통적인 특성을 보였는지 탐색하였다. 1차적으로는 수집된 회고록을 읽어가면서 바람직한 교사상이 나타난 의미 있는 대화나 내용에 밑줄을 긋고 표시하였다. 2차적으로는 자료를 반복하여 읽어가면서 표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발견되는 패턴과 소주제를 찾아 기록하였다. 3차적으로는 발견된 소주제를 확정하고 14가지 하위개념 범주에 따라 유목화하였다.

보고서는 대학생이 경험한 바람직한 교사상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먼저 찾아 보았다. 그

리고 유사한 특성을 묶어서 빈도가 높은 순으로 기술하였다. 1차로 완성된 보고서는 연구에 참여했던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에게 읽도록 하여 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와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을 보완하여 완성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IV. 대학생이 경험한 바람직한 교사상

학생들이 경험한 교사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교사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으며 어떠한 점이 훌륭하다고 생각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 회고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교사상을 도출하였다. 학생들의 회고록에서는 주로 바람직한 교사의 특성이 기술되어 있었다. 공통 사례가 매우 소수이거나 없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선생님

연구 대상 학생들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선생님'을 가장 바람직한 교사로 생각하고 있다.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선생님'은 모든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선생님, 대화로 문제 해결을 돕는 선생님, 학생을 믿고 인권을 존중해주는 선생님, 세심한 배려와 정감이 있는 선생님, 정신적 위로와 힘이 되어 준 선생님 등이다. 우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선생님은 '모든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이다. 구승희 학생의 사례가 그 예이다.

...선생님께서서는 아이들 모두가 두루두루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내성적이어서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아이를 활발한 아이와 짝을 지어주거나 조를 만들어 주셔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반에는 왕따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서로 웃으며 지낼 수 있었다...(구승희, 여)

이처럼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사랑은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선생님'을 바람직한 교사로 생각하였다. 다음은 교사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책임감과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최선의 효과를 거두게 한 사례이다.

...선생님은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 조력을 아끼지 않으셨다. 우리의 의견을 모아 결

정되면 아이들은 각자의 장기를 발휘하여 어느 반 보다 훌륭하게 처리해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한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선생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믿고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는 행사 때마다 1~2위를 차지하였다.…(권도현, 남)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선생님의 또 다른 모습은 ‘대화로 문제 해결을 돕는 선생님’이다. 대화가 통한다는 것은 곧 공감대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교사와의 진실한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체벌 대신 아이들과 대화를 선택하셨다. 아이들을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불러서 상담을 시작하였다. “무슨 어려움이 있나?”, “왜 공부에 흥미가 없을까?” 등 아이들의 고민과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 해결하도록 애쓰셨다. 선생님은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일일이 지적하고 가르쳐 주셨고, 아이들은 변하기 시작했다.…(한갑수, 남)

학생들은 ‘학생을 믿고 인권을 존중해주는 선생님’을 바람직한 교사로 생각하였다. 김지수 학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을 함부로 의심하거나 꾸중하지 않고 끝까지 학생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선생님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우리 반에 문제아가 한 명 있었는데, 한 번은 절도를 했다는 의심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의 정황이 모두 이 학생이 범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다른 선생님들은 관심을 갖지 않거나 그 학생이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그 학생을 믿고, 징계를 받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애써 주셨다. 끝내는 3학년 선배들이 한 짓임을 알아내셨다.…(김지수, 여)

다음으로 ‘세심한 배려와 정감이 있는 선생님’은 사소하지만 세심한 배려와 정감 있는 언행으로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생님이다.

…선생님께서 졸업식 때 3년 동안의 우리 성적표와 편지 상자, 모의고사 성적표, 선생님의 편지 등이 담긴 파일을 선물로 주셨다. 사소한 것 하나 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신경 써 주셨다는 점이 정말 감동이었다.…(이세창, 남)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힘든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정신적 위로와 힘이 되어 준 선생님을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보았다. 김경록 학생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갑작스레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선생님은 나보다 더 통곡하시며 나를 안아주셨다. 학교에서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생각하던 나에게 마음으로 대해 주시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선생님은 나를 따로 불러 더욱 신경 써 주시고 때로는 꼭 안아주셨다. 소홀한 학업도 바람직하게 발전했다. (김경록, 남)

이와 같이 연구 대상 학생들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선생님'을 가장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춘기를 보내면서 정서적인 혼란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이처럼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고 존중해주는 선생님과 상호작용을 통해 건전한 자아를 형성하고 바른 인생관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내용이외에도 학생들은 활기차고 밝은 모습을 지닌 선생님, 강인한 선생님, 매사에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선생님 등을 바람직한 교사로 생각하였다.

나.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선생님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 하는 전문 직업인을 일컫는 말이다. 가르치는 행위 중에서 수업 지도는 학교 교육활동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교과 지식과 함께 교수 방법에 관한 능력이 필요하다(이윤식 외, 2007: 64).

학생들이 경험했던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회고록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대학생이 경험한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나타난 두 번째 공통 요인은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선생님'이다.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선생님'은 다양한 자료와 수업 기법을 적용하는 선생님, 수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선생님,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 등이다. 우선 학생들은 교과 및 제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료와 기법을 적용한 수업을 이끌어가는 선생님'을 바람직한 교사로 생각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하여 참된 공부의 의미를 깨닫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선생님은 다르셨다.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을 하되 학생들의 사고력을 높이고자 다양한 시나 글귀들을 나누어 주셨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 수업을 전개하셨다. 그 후로 그동안 내가 해왔던 공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참된 공부란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즐기는 것이라 정의 내렸다. (이민아, 여)

또한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선생님'과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을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보았다.

...인상 깊었던 점은 수업에 대한 열정이다. 이 분만큼 수업 준비가 철저한 선생님은 없었다. 교과 내용에 따라 ppt와 시청각 자료, 어떤 경우에는 소품을 직접 만드셔서 쉽게 이해

하도록 해주셨다. 선생님 자리에는 자료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고민환, 남)

...난 영어에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해 영어라면 질색을 하곤 했다. 이런 나를 아셨는지 어느 순간부터 수업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셨다. 우선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팝송의 가사를 뽑아와 나눠주시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독해법을 가르쳐 주셨다. 영어를 떠들떠들 독해하던 나의 성적을 크게 향상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조은혁, 남)

위의 사례들은 교사가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는 능력을 발휘하여 학생들을 수업 속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성취감을 갖게 하고 능동적인 학습자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선생님'을 바람직한 교사로 인식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자료와 수업 기법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재미있는 수업을 이끌어 가는 선생님, 수업에 열정을 가지고 지도하는 선생님이다. 교사의 효과적인 수업 지도 능력은 단순히 학생에게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생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배움의 즐거움과 의미를 알게 하며 학생의 진로를 안내하고 도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진로안내자로서의 선생님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나타난 세번째 공통 요인은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진로안내자로서의 선생님'이다.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진로안내자로서의 선생님'은 진로 지도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가지고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주는 선생님, 학생의 재능을 발견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이다. 다음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주는 선생님에 대한 회고 사례이다.

...수능 시험을 보고 학교를 정할 때 가고 싶은 학과가 없었다. 성적에 맞춰 가려고 할 때, 선생님께선 나보다 나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 적성검사 결과, 성적, 나의 취미와 관심사를 파악하고 계셨고 내 라이프플랜을 짜 놓으셨다. 그렇게 많은 직업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길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다...(김혜정, 여)

진로의 세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안내함으로써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목표를 향해 다가서도록 돕는 일은 바람직한 교사의 중요한 자질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은 '학생의 재능을 발견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을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보고 있다.

...선생님은 나의 내성적인 성격과 자신 없는 학교생활에 큰 힘을 그어주셨다. 그 분은 내가 친구들처럼 수학은 잘 하지 못하지만 그림이나 글쓰기는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내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자주 칭찬해주셨다. "진희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구나.", "진희는 솔직한 마음이 글을 잘 쓰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다."며 칭찬해주실 때마다 겉으로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속으로는 너무 좋아 춤을 추고 있었다...(장미오, 여)

이처럼 학생들은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진로안내자로서의 선생님'을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주는 선생님과 학생의 재능을 발견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이다.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장점과 소질을 찾아 계발하도록 돕는 일부터 다양한 직업의 세계로의 안내까지 발달 수준에 맞는 진로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희망적인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라. 학생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선생님

대학생이 경험한 바람직한 교사상의 네번째 공통 요인은 '학생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선생님'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師弟同行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앞에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선생님'이 교육의 본질인 교사-학생간 인격적 상호작용의 한 주체로서 학생의 인격존중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학생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선생님'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師弟同行'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선생님'은 부모님이나 친구같이 마음을 헤아려주는 선생님,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선생님, 학생과 함께 하는 선생님이다. 학생들은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족같이 챙겨주던 선생님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하루는 내가 야간자율학습을 땡땡이치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러 몰래 나간 적이 있었다. 나를 걱정하신 담임선생님께서 나에게 연락을 하셨는데 난 연락을 받지 못했고 다음 날이 되어서 땡땡이를 치고 나간 일이 죄송스러워 말없이 있었는데 먼저 오셔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시면서 걱정해 주셨다. 나를 그렇게 걱정해주고 바라봐 주는 사람은 어머니 이후로 처음이었다...(한상철, 남)

위의 사례와 같이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질책하기보다는 부모님같이 챙겨주는 선생님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학생의 입

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선생님'을 바람직한 교사로 생각하였다.

...학창 시절, 친구와의 다툼이나 사고를 정리하는 선생님의 행동은 체벌뿐이었다. 마음 속 이야기를 서로 하게 하는 방법을 쓰는 분은 없었다...그 분은 힘들어하거나 문제있는 아이들을 데려와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다. '한두 번 그러시다 말겠지.'하고 생각했지만 선생님은 변함없이 항상 아이들의 말에 먼저 귀기울여 주셨다...(박한별, 여)

또 학생들은 '학생과 함께 하는 선생님'을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보고 있다. 권도현 학생의 사례가 그 예이다.

...선생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단합대회, 비빔밥 만들어 먹기, 다같이 환경심사 준비하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다. 무엇보다도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늘 교실에 계셨다. 친구처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고 점심을 먹은 뒤에는 아이들과 함께 추구를 하기도 하셨다...(권도현, 남)

이와 같이 학생들은 '학생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선생님'을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부모님이나 친구같이 마음을 헤아려주는 선생님,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선생님, 학생과 함께 하는 선생님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함께 대화하며 자신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교사를 원하고 있다. 교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서서 학생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주며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리더십이 있는 선생님

대학생이 경험한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나타난 다섯번째 공통 요인은 '리더십이 있는 선생님'이다. 리더십이 있는 선생님은 학급운영 방침이 명확한 선생님,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선생님, 학급 전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선생님 등이다. 학생들은 '학급운영 방침이 명확한 선생님'의 질책이나 꾸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순응하고 있다.

...선생님은 유하실 땐 유하시지만 엄격할 땐 예외를 두지 않으셨다. 수능 시험일이 다가오면서 학교 전체 분위기가 흐트러져 있을 때도 우리 반만은 선생님의 엄격한 지도 아래 지각을 하거나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무단으로 빠져 나가는 일이 없었다...(안유진, 여)

또한 학생들은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선생님'을 바람직한 교사로 생각하였다. 학생에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내재적 가치를 인정

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신뢰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선생님께서서는 지적·신체적·정서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서로 협력하고 학생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 반은 늘 전교에서 탑클래스였고, 체육대회에서도 평소 닦아놓은 협동심을 바탕으로 우승을 하곤 했다.…(김우혁, 남)

위 사례는 교사가 학생이 내재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동기와 기회를 부여해주는 학급경영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들이 경험한 리더십이 있는 선생님은 ‘학급 전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선생님’이다. 김보은 학생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부족한 학생들이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교사의 학급경영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생님께서서는 우리 반 모든 아이들이 서로를 소중한 친구 사이가 되도록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실천하셨다. 한 달에 두 번씩 토요일마다 모둠별로 점심도 해먹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듬일기도 썼다. 방학 전에는 학교에서 1박 2일로 나눔의 시간을 가져 반 아이들 모두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김보은, 여)

이처럼 학생들은 ‘리더십이 있는 선생님’을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보고 있다. ‘리더십이 있는 선생님’은 학급운영 방침이 명확한 선생님,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선생님, 학급 전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선생님 등이다. 어떤 집단이 목표를 가지고 발전해 나가려면 지도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의 리더십은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상호 협동을 유도하며 최대한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데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바. 바른 삶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생님

대학생이 경험한 바람직한 교사상의 여섯번째 공통 요인은 ‘바른 삶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생님’이다. ‘바른 삶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생님’은 말로 지시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솔선수범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적 영향력을 미치는 선생님이다.

…다른 선생님들은 교사식당에서 따로 식사를 하셨는데, 선생님은 항상 도시락을 싸오셔서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드셨다. 자신이 드실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가져오셔서 반찬이 부족한 아이에게 나누어 주셨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집안 사정이 안 좋아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급우의 도시락까지 싸와 몰래 전달해 주셨다고 한다.…(이수민, 여)

또한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해결해야 할 일들을 직접 실천하고 앞장

서는 선생님을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나눔의 의미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교사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킨 사례이다.

…그 분은 우리들에게 보육원이라는 곳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 주셨다. 우리 반만의 바자회와 성금 모금을 하고 보육원에 가져 갈 생필품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들을 샀다. 보육원에서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 나누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정미나, 여)

이처럼 학생들은 ‘바른 삶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생님’을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출선수범하는 선생님, 이웃 사랑 및 나눔의 미덕을 함께 실천하는 선생님 등이다.

이상으로 ‘대학생이 경험한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선생님,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선생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진로 안내자로서의 선생님, 학생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선생님, 리더십이 있는 선생님, 바른 삶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생님을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세부 사례를 제시하면 <표 IV-1>과 같다.

<표 IV-1> 학생이 경험한 바람직한 교사상

교 사 상	세 부 사 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선생님	① 모든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 ②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선생님 ③ 대화로 문제 해결을 돕는 선생님 ④ 학생을 믿고 인권을 존중해주는 선생님 ⑤ 세심한 배려와 정감이 있는 선생님 ⑥ 정신적 위로와 힘이 되어 준 선생님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선생님	① 다양한 자료와 수업 기법을 적용하는 선생님 ② 수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선생님 ③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진로 안내자로서의 선생님	① 진로 상담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주는 선생님 ② 학생의 재능을 발견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
학생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선생님	① 부모님이나 친구같이 마음을 헤아려주는 선생님 ②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선생님 ③ 학생과 함께 하는 선생님
리더십 있는 선생님	① 학급운영 방침이 명확한 선생님 ② 학생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선생님 ③ 학급 전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선생님
바른 삶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생님	①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선생님 ② 어려운 친구들을 위하여 선행을 베푸는 선생님

주: 대학생이 경험한 바람직한 교사상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제시함.

학생들은 교사를 단순히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일의 전문가로 보지 않는다. 학생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교수 전문가, 진로 상담 전문가, 학생 이해를 바탕으로 리더십 있는 교사, 본보기와 삶의 표본으로서 바른 인격을 고루 갖춘 전인적인 교사, 지와 덕을 겸비한 교사를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인교육을 실천하기에 앞서 스스로 전인적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미래대학교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55명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교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사상을 도출해보는 귀납적인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교직과정 이수중인 대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 탐색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교사상 정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현직교사들에게는 교육활동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 탐색을 위하여 학생들이 경험한 교사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한 교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를 기록한 회고록을 수집·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유목 분석과 주제 분석의 과정에 따라 회고록에 나타나는 공통 특성을 코딩하고 주제에 따라 유목화 하였다.

연구의 결과, 대학생이 경험한 바람직한 교사상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선생님,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선생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진로안내자로서의 선생님, 학생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선생님, 리더십 있는 선생님, 바른 삶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생님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바람직한 교사상은 선행 연구와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선생님’은 이석호(1994), 김재우(1996), 김진한(1998), 김병찬(2005), 송광용(2007)이 강조한 교사상과 의미가 같다.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 주는 선생님’ 또한 송광용(2007)의 거의 모든 학자들이 논의한 바람직한 교사상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진로 안내자로서의 선생님’은 이석호(1994)과 김진한(1998)이나 윤종건(2000)이 새 시대에 필요한 교사상으로 제시한 사기(四技) 중의 하나인 상담 전문가로서의 기능과 일치하며, ‘학생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선생님’은 김진한(1998)이 제시한 바람직한 교사상과 일치한다. ‘리더십 있는 선생님’은 김재우(1996), 김병찬(2005)이 제시한

내용과 일치한다. 바람직한 교사상의 개인적 특성인 ‘바른 삶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선생님’은 술선수법을 강조한 김진한(1998)이 제시한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대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은 조동섭(2005)이 시대와 사회의 교육적 요구에 필요한 교사의 자질로 제시한 전문성의 개념 구조와 매우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선생님’, ‘꿈과 희망을 주는 진로안내자로서의 선생님’, ‘리더십 있는 선생님’은 지식 및 능력 기반 전문성과 일치하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선생님’, ‘바른 삶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생님’은 신념 기반 전문성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은 교사가 단순한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는 기능인이 아니라 예술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돈희(2000)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선생님을 가장 바람직한 교사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겠다. 관심과 사랑, 자율성, 대화, 신뢰, 배려, 위로 등의 특성이 대학생들의 기억 속에 있는 바람직한 교사들이 갖추고 있다 하겠다. 바람직한 교사는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인정하며 바른 길로 안내하고 조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배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겠다. 교사의 수업 지도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사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라 하겠다. 교사의 수업지도 능력은 수업자료, 수업기법, 열정, 수업흥미 등의 특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교사는 수업 전문가로서 자질과 능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학생들은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안내자”와 “동반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진로 상담, 비전 제시, 재능 발견, 진로에 대한 희망과 용기, 그리고 친구, 이해, 동행 등의 특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진로지도, 사제동행 등의 중요성은 사회변화가 가속화될수록 높아지고 있다.

넷째, 학생들은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본보기가 되는 리더”로서의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명확한 학급운영, 학생 능력발휘, 화합, 행동 본보기 등의 특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항들이 그것이다.

대체적으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좋은 수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상담활동에 능숙하며, 그리고 사제 동행을 실천하며, 술선수법하는 리더십 있는 교사의 모습을 대학생들이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그리고 있다 하겠다.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수준이 높아진 교육 수요자와 사회의 요구는 더 다양해지고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교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안타깝게도 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불신과 실망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교사상을 지향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주도적·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과목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행동 양식에 대한 이해 등을 갖춘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학생과 함께 배우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기 기대한다.

둘째, 교육개혁, 교사평가제도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은 바람직한 교사상의 정립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뚜렷한 정립이 없는 각종 개혁이나 정책은 성과 없는 부실한 정책 산출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학생이 보는 바람직한 교사상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셋째, 교원 양성 교육 및 임용에 있어 바람직한 교사가 갖추어야 할 특성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학생들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교사와 동시에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 교사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활동이 학생과 교사간의 인격적 상호작용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사의 인성적 측면이 중요하다. 교원 양성 및 임용 과정에서 교수 능력과 더불어 바른 인성을 갖춘 전인으로서의 교사가 양성되고 선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이 연구의 대상자가 교직과정 이수생들인 바, 이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을 어떻게 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원래부터 교사양성을 목표로 하여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는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바람직한 교사상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일반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추가적으로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교직과정 이수생에게는 더욱 '교직 이해', '교사의 길', '교직 윤리' 등을 포함한 교사론에 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끝으로, 학생들이 경험한 교사들의 학교급에 따라 바람직한 교사의 특성에는 어떠한 차이와 유사성이 있는지 탐색해보는 일도 의미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학교급별로 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은 어떠한지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개선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토대로 학교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현장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 참고 문헌 ▣

- 고재길(2002). 바람직한 초등학교 교사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비교,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2007. 10.). 교사가 희망이다, 교육마당 21, (308), 44-46.
- 김명수(2005). 교원의 질 향상: 기본 전제, 학교경영, 18(7), 48-54.
- 김병찬(2005). 현대 교사상 탐색을 위한 질적 분석 연구, 한국교육, 32(4), 57-90.
- 김영덕(2001). 중학교 학부모가 지각한 교사상과 기대하는 교사상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2004).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교사상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운기(2005). 초등학교 학생들이 바라는 교사상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우(1996). 교직교육론. 서울: 양서원.
- 김정환·강선보(2005). 교육학개론. 서울: 박영사.
- 김종철(1994). 최신 교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태수(1999). 초등학교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상과 기대하는 교사상과의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한(1998). 현대 사회에서의 교직과 바람직한 교사. 교양교육연구소 논문집, (3), 53-67.
- 박상국(1997). 중학교 학부모가 지각하는 교사상과 기대하는 교사상과의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화·김지희(2001). 교원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교육연구논총, (18), 123-140.
- 송광용(2007). 교직과 교사: 교사의 역할과 자질. 서울: 학지사. 39-72.
- 신극범(1997). 21세기 교육대국의 건설과 교원의 지위,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7-31.
- 오성삼(2007). 외국교육 동향, 일본의 교원자격 10년 주기 갱신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자료.
- 오숙자(2001). 초등학교 교사상에 대한 교사·학부모·학생의 인식 분석,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관중(1995). 교사상 정립의 미래지향적 과제. 조선대 교육연구, 95(1), 31-45.
- 윤종건(2000). 포스트모더니즘, 구성주의, 그리고 바람직한 교사상, 한국교사교육, 17(3), 213-229.
- 이돈희(2000). 21세기 교사상과 교직, 한국교사교육, 17(1), 1-18.
- 이석호(1994). 바람직한 교사상의 탐색, 중등교육연구, (6), 132-150.
- 이윤식·유현숙(1991). 신규교사 자격 검정 방안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윤식 외(2007). 교직과 교사. 서울: 학지사.
- 이재호(2000).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효(2006). 고등학생들이 기대하는 교사상 연구: 부산시내 고등학생들이 기대하는 교사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혁규(2002). 한국교육의 전통과 사범-사도-교사상, *초등교육연구*, 제12집, 55-73.
- 정영수(1998). *교사와 교육*. 서울: 문음사.
- 조동섭(2005).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 *학교경영*, 18(7), 66.
- 주복희(2000). 인문계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지각하는 교사상과 기대하는 교사상의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세영 · 이옥화(1996). 정보사회의 도래와 교육의 변화 전망, *교육학연구*, 34(1), 한국교육학회. 189-208.
- 최석민(2000). 듀이의 성장 개념에 입각한 교사상 탐색, *초등교육연구*, 13(2), 한국초등교육학회. 117-133.
- 황기우(1998). 21세기 교사의 역할. 서울: 원미사.
- _____(2001). 서양의 교육애에 나타난 교사상의 탐구, *교육문제연구*, 14(1), 153-165.
- 황의일(1997). 교직의 성격: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 교육과학사.
- Spradley, J. P.(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 Y.: Holt, Rinehart and Winston.

ABSTRACT

A Study 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Desirable Teacher's Model

Lee, Yun Sik (University of Incheon, Professor)

Kim, In Jeong (Hapil Elementary School, Teacher)

The focus of this study was placed on the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about a desirable teacher's model.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55 students who took teacher-training courses at Mirae University(a pseudonym). Those students presented written reports about their most desirable teachers by whom they were taught a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level.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students' perception of desirable teachers are related with following 7 characteristics. ① teachers who respect the personality/individuality of students, ② teachers who make students feel the joy of learning, ③ teachers who instill dream and hope into students as career guiders, ④ teachers who look at things through the eyes of students, ⑤ teachers who have leadership, ⑥ teachers who show students how to live a decent life, ⑦ teachers who are warm-hearted.

Key words : desirable teacher's models, teacher's disposition